

초등 실과(가정)의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전 세 경

공주교육대학교 실과교육과

A Study on Curriculum Revision Orient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 : Home Economics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Jeon, Se Kyung

Dep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1) to identify the position and the problems of Home Economics in Elementary School, and 2) to propose orientation for the future curriculum revision. Elementary Home Economics, historically, has been partially practiced as a part of Practical Arts Education. As a results, the natur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s been distorted and lacked the disciplinary consistency with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gnored the importance of the understanding family life as well as underscored the technical skills.

The identified status and problems has an implication for the subject's further development. The propositions for Elementary Home Economics Education which has the original intention, are as follows:

- (1) the curriculum of Practical Arts Education must be built on theoretical base and criteria.
 - (2) the name of subject, Practical Arts Education, must be changed to [Technology · Home Economics].
 - (3) the contents of the subject must be practical which enable to promote motivations and interest of students.
-

I. 서 론

1995년 5·31 이후 진행되어 오는 교육개혁 중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안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등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00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001년과 200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라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신 교육과정의 총론 연구와 자론의 개발지침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정중 가정교과의 현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의있고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 글은 그 작업중 초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초등가정과교육의 교육과정 전개상의 문제점을 밝혀 보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이 글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쓰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가정과교육의 위치가 [실과]라는 교과목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과]내 가정과교육의 위치를 밝혀 보고, 둘째는 현 6차교육과정에서 [실과]내 가정과교육의 전개내용을 살펴봄, 셋째, 이에 근거하여 7차교육과정에서 초등가정과교육의 개정방향과 개정시 고려되어야 할 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실과]교과내 '가정과교육'의 위치

초등 가정과 교육은 중등교육과는 달리 교과구성상

[실과]라는 교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과교육의 성격 및 위치를 [실과]교과의 역사와 개념, 학문의 구조를 살펴보는 가운데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역사적 위치

우리나라 실과교육의 효시는 1895년 소학교라는 제도교육의 시작시 심상과 고등과에서 실시한 '재봉'이라는 교과명으로부터이다. 이후 1906년 보통학교에서는 '수예', '농업', '상업', '수공'의 교과목을 교수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교과는 1955년 종래의 직업과와 미술과의 공작의 일부를 합하여 [실과]라는 단일 교과명으로 통합되었다. [실과]라는 교과가 탄생되기 전까지는 초등가정과 교육은 재봉 및 수예(1911), 재봉, 재봉·가사(1922), 가사·재봉(1927), 가사 및 재봉(1929), 가사, 재봉(1938), 가사·재봉(1941), 요리·재봉(1945), 가사(1946) 등의 과목명칭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과구성의 배경하에 초등가정과 교육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등가정과 교육과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실과교과측면으로 보아도 실과교과는 단일한 모험문을 갖지 못하고 몇개의 학문적 영역으로 구성·종합된 느낌을 주며, 학문의 정당성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른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의 표는 1차교육과정부터 6차교육과정까지 실과교과의 각 학년별 단원명을 실과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학문의 영역별로 연구자가 분류해 본 것으로, 이를 통해 초등가정과교육의 위치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2)는 이를 다시 전체 구성비로 분석한 것이다.

<표 1> 실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각 학문영역별 단원내용 ()안은 학년

	가정	농업	공업	상업·컴퓨터	기타
1955 (1차)	깨끗한 몸차림(4) 안락한 우리집(4) 집일의 시중(4) 생활의 반성(4) 깨끗한 우리집(5) 겨울준비(5) 부엌일(5) 생활의 반성(5) 명량한 우리집(6) 병간호(6) 우리들의 장래(6)	꽃가꾸기(4) 밭농사(4) 집집승(4) 학교림(5) 돼지 기르기(5) 김장 밭(5) 학습원(6) 벼와 보리농사(6) 누에치기(6)		어린이 판매부(5) 어린이 은행(6)	우리학교(4) 학습발표회(6)

	가정	농업	공업	상업·컴퓨터	기타
1963 (2차)	즐거운 나의 하루(4) 방안꾸미기(4) 나의 몸차림(5) 영양과 식사(5) 기구의 손질과 관리(5) 우리들의 식량(6) 현웃 살려쓰기(6) 간호와 치료(6) 손님상 차리기(6) 우리들의 장래(6)	기름진 우리땅(4) 우리들의 꽃밭(4) 토끼와 닭(4) 땅의 보호(5) 과일나무 나르기(5) 누에치기(5) 물고기 기르기(5) 집짐승 기르기(6) 4H클럽과 농업협동조합(6)	만들어 쓰는 기쁨(4) 전기의 이용(5) 건축과 목공일(6) 제작과 수리(6)	어린이 은행(5)	새학년(4) 일과 농물(6)
1974 (3차)	즐거운 나의 하루(4) 영양과 식사(4) 단정한 몸차림(4) 청소와 정리(4) 의복의 손질과 보존(5) 좋은 식사(5) 즐거운 우리 집(5) 손님 모시기(6) 살기좋은 집 꾸미기(6) 의생활계획(6)	꽃가꾸기(4) 집짐승 기르기(4) 나무 가꾸기(5) 우리 고장의 농사(5) 물고기 기르기(5) 채소의 울 가꾸기(6) 축산과 어업(6) 새마을 가꾸기(6)	설계와 만들기(4) 일용품 만들기(5) 건축과 가정공작(6) 금속공작(6)	금전출납부와 저축(4) 저축하는 생활(5)	
1983 (4차)	단란한 가족(4) 용돈쓰기의 이해(4) 단정한 몸차림(4) 간단한 바느질(4) 우리의 음식(4) 집안 일 돕기(5) 조리의 준비와 기구 다루기(5) 주머니 만들기(5) 살기 좋은 집(5) 음식 만들기(5) 가정기기의선택과사용(5) 초대와 모임(6) 알뜰한 옷마련(6) 합리적인 음식마련(6) 나의 적성과 진로(6)	꽃 가꾸기(4) 집짐승 기르기(4) 채소 가꾸기(5) 나무 가꾸기와 환경 보호(6) 곡물의 생산과 유통(6) 해양자원의 개발과 어업(6)	정리상자 만들기(4) 목공일하기 (5) 만들어 쓰는 기쁨(6)		
1990 (5차)	가정에서 할일(4) 용돈 쓰기(4) 단정한 옷차림(4) 간단한 바느질(4) 우리의 음식(4) 집안 일 돕기(5) 조리준비와 음식만들기(5) 주머니 만들기(5) 살기좋은 집(5) 가정기기 다루기(5) 초대와 음식마련(6) 합리적인 소비생활(6) 나의 적성과 진로(6)	꽃가꾸기(4) 집짐승 기르기(4) 채소 가꾸기(5) 나무 가꾸기와 환경 보호(6) 곡물의 생산과 이용(6) 수산물의 생산과 이용(6)	정리상자 만들기(4) 목공일하기(5) 만들어 쓰는 기쁨(6)	일과 컴퓨터(5) 컴퓨터 다루기(6)	

	가정	농업	공업	상업·컴퓨터	기타
1996 (6차)	단정한 옷차림(3) 청소하기(3) 다과차리기(3) 합리적인 용돈쓰기(4) 과일상 차리기(4) 간단한 바느질하기(4) 음식만들기(5) 간단한 바느질 하기(5) 밥상 차리기(6) 주거공간 활용하기(6)	물가꾸기(3) 꽃가꾸기(4) 금붕어 기르기(4) 채소가꾸기(5) 집짐승 기르기(5) 집안 가꾸기(6) 애완동물 기르기(6)	정리상자 만들기(3) 끈으로 용품만들기 (3) 전기기구 다루기(4) 전자키트 만들기(5) 목제품 만들기(6)	컴퓨터 다루기(5) 컴퓨터로 글쓰기(6)	

〈표 2〉 실과내 학문영역별 단원개수의 구성비 (1차~6차)

개수(%)

	가정영역	농업영역	공업영역	상업영역	컴퓨터영역	기타	전체
1955(1차)	11(45.8)	9(37.5)	0(0.0)	2(8.3)	0(0.0)	2(8.3)	24(100)
1963(2차)	10(38.5)	9(34.6)	4(15.4)	1(3.8)	0(0.0)	2(7.7)	26(100)
1974(3차)	10(41.7)	8(33.3)	4(16.7)	2(8.3)	0(0.0)	0(0.0)	24(100)
1983(4차)	15(62.5)	6(25.0)	3(12.5)	0(0.0)	0(0.0)	0(0.0)	24(100)
1990(5차)	13(54.2)	6(25.0)	3(12.5)	0(0.0)	2(8.3)	0(0.0)	24(100)
1996(6차)	10(41.6)	7(29.2)	5(20.8)	0(0.0)	2(8.3)	0(0.0)	24(100)

위의 〈표 1〉과 〈표 2〉를 통해 초등학교 가정과교육의 위치는 역사적으로 보아 다음 2가지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실과교과가 1차교육과정 이전의 가정, 농업, 상업, 수공의 과목을 통합한 이래 [실과]라는 교과명하에서도 그 학문의 영역별 구성은 커다란 변화가 없다. 다만, 3차 교육과정까지 유지되던 상업의 영역은 없어지고,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컴퓨터의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가정과교육은 [실과]교과의 출발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실과]교과내의 하나의 뚜렷한 하위영역으로 구성·존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러한 학문의 하위영역별 구성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초등가정과교육은 1차교육과정부터 현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내용의 구성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왔다. 각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당시 사회적 배경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점이 달랐고, 그에 따라 [실과]교과

내에도 강조되는 영역의 비중이 달라져 왔다. 현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과교육의 영역은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고, 상대적으로 농업영역은 다시 늘어났으며, 공업영역도 크게 늘어 난 것을 알 수 있다.

2. 개념적 위치

역사적으로 보아 [실과]라는 교과명하에 여러 학문의 영역이 통합·구성되기 위해서는 교과의 개념 및 목표등에 이들 학문영역의 공통된 성격이 교차되고 포함·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 농업, 공업, 컴퓨터와 같은 영역의 어떤 특성이 [실과]교과의 공통점이 되게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따라서 [실과]교과의 개념 및 목표, 성격을 파악하면서 초등교육에서의 가정과교육의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과교과에 대한 몇가지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진로교육의 증해교과는 실과교육이다. (김성동, 1996:17)

*초등학교 실과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적 교양(vocational literacy) 교육을 하는 교과로서 농업·공업기술·상업·가정등 직업교육관련 분야에 대한 다루기·만들기·가꾸기 및 기르기·건설하기등의 내용을 실천적이고 탐구적인 문제해결학습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기능을 익히게 함으로써 ...(이용순, 1996:25)

*실과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관심과 노작 교육으로서 유용한 내용을 정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용순, 1996:35)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교육수준에서 실천적 교과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지각과 탐색·이해·태도를 함양시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주된 교과는 실과이다 (이용순, 1996:36).

*초등학교 실과교육은 직업교육이나, 취업을 위한 준비교육이 아니라,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생활지식이나 기능을 갖추게 하는 교양교육이다(전국교대실과교육연구회, 1996:13).

*실과는 학생의 일상생활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는 교과로서, 실천적이고 탐구적인 문제해결의 경험을 통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기능을 익히게 함으로써, 현실의 생활과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교양교과이다(교육부, 1994:198).

*실과는 초등학교 교양교육(general education, non-vocational education)으로서 통합적 직업·기술적 내용을 모학문으로 한 다루기, 만들기, 기르기 및 가꾸기, 건설하기 등을 문제해결적 노작활동을 통하여...(최유현, 1996: 4).

이상으로 보아 초등학교 실과의 개념에는 일반적 교양교육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아직도 직업교육, 진로교육, 기술교육, 노작교육, 나아가 실업교육의 의미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과거 상급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웠던 때에는 초등학교만 마치고도 직업을 갖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실과의 성격이 실업교육의 성격을 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날 실과교육은 그 영역속에 농·공·상업적인 실업 또는 직업적인 것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직업교육은 아니며, 실업 또는 기술교육이라고도 말하기 어렵다.

더우기 가정과교육을 실업, 직업, 기술교육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의 영역이 실과속에 다른 농·공·상업적인 내용과 나란히 구성되어 있는 한 위와 같은 개념상의 혼란은 가정과교육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편제상으로는 초등학교에서는 [실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실업·가정에 관한 교과]로 규정되어 연계되어 있으므로, [실과]의 개념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가정과교육의 위치는 그 성격이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3. 학문의 구조적 위치

실과의 학문적 성격을 구조적으로 논의한 연구(최유현, 1996: 5-6)에 비추어지고 있는 가정과의 위치를 보아도 역사적, 개념적으로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첫째, 실과교육을 실과내용 지식의 근원인 농업, 산업공예, 상업, 가정·가사 영역이 종합된 학문구조로 보는 견해는 실과의 역사를 통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실과의 구성은 학문적 분야의 종합으로 농업, 공업, 가정, 컴퓨터 분야로 구성되고 있다. 최근 7차교육과정의 교과내용 구성도 생활원예, 조리·재봉, 설계공작,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안도 이러한 견해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지식의 구조 측면으로 기술학(Technology)과 가정학(Home Economics)을 실과 학문적 모체로 보는 견해이다. 여기서 기술학의 영역은 제조기술, 건설기술, 정보 및 통신기술, 에너지 및 수송기술, 생물관련 기술(농업 및 수산관련 기술)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정학의 영역은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경영 및 관리(소비자교육)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기술학과 가정학이라는 두가지 지식의 구조 분류는 첫번째 개념에서의 농업, 공업, 상업, 컴퓨터등의 학문분야를 기술학이라는 지식구조하에 둬으로써 첫번째 견해 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구조화되었으나, 그렇다 해도 학문적 성격이 전혀 다른 가정학과 기술학이라는 이원적 구조로는 실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짓기 어렵고, 그러므로 가정과교육

1) 최근 개최된 한국실과교육학회의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대회(1996.11)의 자료집중 각 연구자들의 원고, 실과교육의 대표적인 교재 2권과 교육부의 실과 교육과정 해설중에서 발췌하였다.

의 위치는 실과의 어느 한 쪽 부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견해로 실과의 학문적 성격을 규정짓고자 하는 방식은 현재 중학교 이상의 [기술·가정]이라는 교과목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겠다.

세계, 통합적 구조의 측면으로, 이것은 제 6차 실과교육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이다. 즉 인간의 실생활을 기초로 노작교육에 바탕을 둔 독자적 학문 영역을 다루기, 만들기, 가꾸기 및 기르기, 전사하기 등의 행동적 영역으로 통합하려는 입장인데, 이는 앞의 두 견해에서의 학문적 영역의 내용을 활동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므로, 앞의 두가지 입장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위의 내용을 볼 때, 초등가정과 교육은 실과내에서 명확하게 그 본질을 찾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실과]내의 가정과교육의 위치는 역사적으로는 가정·농업·공업·상업등의 학문적 영역이 종합되어 이어져 오면서 이러한 학문적 영역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자리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정과교육은 초등학교의 실과교육이 교양교육으로 그 의미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도 가정과교육의 의미는 왜곡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현행 6차교육과정에서는 [실과]의 교과목으로서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간 종합·구성되었던 독자적인 학문영역들의 내용속에서 행동적 측면을 추출하고 통합하여 일과 노작교육을 강조하면서 학문적으로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가정과교육은 초등가정과교육으로서 갖는 의의, 즉 어린이가 당면하는 가정생활에서 가족 및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인적, 물적 자원의 운영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습득하게 하는 의미를 상실하여 초등가정과교육은 중등가정과교육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III. 현행 교육과정에서 실과내 '가정과교육'의 전개상의 문제점

1. 실과교과의 본질적 탐구대상인 아동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의 부족

현재 제 6차교육과정에 제시된 실과의 성격을 보

면, '실과는 학생의 일상생활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는 교과로서 실천적이고 탐구적인 문제해결의 경험을 통하여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기능을 익히게 함으로써, 현실의 생활과 미래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교양교과이다.'(교육부, 1994: 198)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실과에서 강조하는 두가지 점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습의 대상은 '가정생활'이라는 점이다. 둘째, 학습방법은 생산적인 기능과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학습의 대상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였을 때, 생산활동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영위되는 것이어야 하고, 실천적 활동도 일상적 가정생활의 과제중에서 다루게 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비추어 알맞은 실과의 학습소재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과의 내용은 가정생활이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인 아동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실과의 내용은 가정생활에서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능)·태도, 가치 그리고 요구가 반영되도록 그들이 가정생활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학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적 배려(내용·목표·방법등)를 했을 때 실과의 역사나 학문의 구조적 특성으로 보아 가정·농·공·컴퓨터등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가에 기초를 두고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전개되는 실과의 성격이나 목표를 보면, 학습의 대상이 '가정생활'이라기 보다 '일'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더 치우쳐 있다. 그러므로 교과내용은 각 학문분야에서 아동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하기'위주의 내용으로 정선·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표 3) 참조), 학습의 방법은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가 우선 전제되기 보다는 생산적인 활동, 실천적인 활동, 일의 세계에 대한 경험등 학습방법이 실과 내용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실과에서는 가정생활 자체를 직접적인 학습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한 사람

〈표 3〉 현행 제 6차교육과정의 실과 내용체계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작기구다루기 *다과용그릇 다루기 *물가꾸기에 필요한 용기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용기구, 바느질 용구, 전기공구, 농구 다루기 *전등갈아끼우기 *전기테스터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느질용구, 납땀인 두, 농구다루기 *조리기구와 연소기구 다루기 *컴퓨터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공구 다루기 *컴퓨터로 글쓰기 *나무 손질하는 가위 다루기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로 정리상자만들기 *여러 가지 다과차리기 *간단한 용품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일준비(씻기, 깎기, 썰기등) 및 상차리기 *전선에 플러그 연결하기 *바느질(홈질)로 용품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키트 만들기 *감자, 달걀등으로 음식만들기 *바느질(박음질, 단추 달기)로 용품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제품 만들기 *밥짓기, 국끓이기
가꾸기 및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로 채소 및 알뿌리 화초 가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자나 화단에 꽃가꾸기 *금붕어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자나 밭에 채소가꾸기 *토끼, 닭 기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외 환경가꾸기 *애완동물기르기
전사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옷개기, 걸기, 보관하기 *옷차림 바르게하기 *정리상자를 이용하여 정리하기 *청소하기와 쓰레기 분리하여 처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용품 고르기 및 관리하기 *용돈 출납부 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고르기 *컴퓨터 관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의 평면도에 가구 배치도 그리기 *음식보관하기 *설거지와 뒷정리하기

으로서 아동들이 직면하고 체험하고 있는 가정생활에서 가족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매일 반복 소비하는 가정자원은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택·활용·관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즉 가정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2. 실과에서의 기능학습의 강조로 인한 가정학 본질의 왜곡

실과의 학문의 구조적 특징을 보면, 종합적 구조, 다가치적 구조, 인간중심적 구조를 들 수 있다. 종합적 구조란 실생활을 중심으로 한 인간생활을 종합적으로 엮은 구조가 아동의 인식활동을 위하여 질적으로 넓은 영역에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가치적 구조라는 것은 실과에서는 진·선·미(지·덕·체, 이해·기능·태도)의 여러 가

치의 통합위에서 학습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중심적 구조라는 것은 아동을 둘러싼 인간중심의 실과가 지니는 지역성과 가족성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곽상만, 1988: 19-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6차교육과정에서 실과의 특성은 음악과나 미술과와 같이 기능교과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실과에서는 생활활동의 능력과 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조작, 제작, 노작활동등 학생들의 기능상의 재능을 개발할 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실과는 생활교과로서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기능' '생활에의 유용성', '실천성' 등의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교과성격에 부합되도록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여 내용을 '다루기', '만들기', '가꾸기 및 기르기' '전사하기'의 행동중심으로 영역을 구성하고, 지도 세항으로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생활 행동 요소 기능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영역에서 기능발달적 측면만 남게 되었고, 논리적 사고력이나 판단력, 합리적인 의사결정등에 필요한 지적 개발영역이나 창의적인 태도, 협동성, 가치함양과 같은 태도개발 영역이 많이 빠지게 되었다.

6차교육과정에서의 기능중심 학습 원칙은 가정과 영역에도 적용되어, 예를 들면, 의생활교육중 바느질이나 의복정리의 학습소재에서 '휴지주머니'나 '단추달기', '옷개기·걸기·보관하기 방법'등의 기능학습이 강조되고 있고, 이해나 태도면의 교육과 이것이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왜 필요한가라는 철학이 소홀히 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바느질과 같은 학습소재에서는 그 과정에서 기능뿐만 아니라 용품이 완성되기 까지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나 인내심, 계획성, 창의성, 응용성, 실천력등을 길러줄 수 있고, 의복정리와 같은 학습소재에서는 의복정리의 방법뿐만 아니라 자원절약과 환경오염방지측면의 교육과, 자신의 옷차림을 단정히 하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평생 자기관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때와 장소에 맞추어 적절한 차림을 하는 것은 의생활과 관련된 사회생활예절의 기본을 내면화시키는 데도 적절한 내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의 교육이 배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실과에서는 기능학습이 강조되다 보니 가정과 교육에서도 기능·기술은 그 자체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가정과교육의 의의가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다. 흔히 가정학은 의·식·주·육아등 가사처리에 관련된 기술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익히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생활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 자연적인 대상에 작업을 하는 것이 학문의 주요한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학문 내부에서도 세부적인 기술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며 그러한 행동의 바탕이 되는 의미나 가치는 논의하지 않는다. 가정학자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룰 때 구체적 현실에 바탕한 가치나 의미, 전제등을 검토하지 않고, 외부적으로는 기술적인 기능들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술자로서 인식되고 있다(Brown, 1986: 42, 이영세, 1995:4에서 재인용).

때문에 초등가정교육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답습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가정과교육에서의 기능학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활

의 과학성을 인식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학습되어야 한다.

3. 중등교육과의 연계성 부족

현재 초등학교 실과는 중학교 기술·산업 교과 및 가정교과와 연계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실과는 '다루기·만들기·가꾸기 및 기르기·전사하기'의 행동영역으로 되어 있는 반면, 중학교 기술·산업 교과는 '인간과 직업·기술·산업·컴퓨터', 가정교과는 '인간발달과 가족관계·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식생활·의생활·주생활'등의 내용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교과외의 구성상 실과가 중학교 기술·산업교과 및 가정교과와 연계되어 있다면, 교과외의 내용에서도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실과교과내에서의 선행경험 또는 내용을 기초로 중학교에서의 다음경험 또는 내용이 전개되어 점차적으로 깊이와 넓이가 더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과교육은 실과내에서 1/n 이라는 물리적인 위치, 또한 전개 방법에서도 기능중심의 학습요소만 선정되다 보니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모두 현재 초등 가정과교육과 중등 가정과교육과는 연계성이 크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가정과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는 많은 부분을 타교과에서 다루고 있고, 실과내에서는 의생활·식생활부분중 기능부분만 다루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표 3> 참조).

물론 같은 연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학문의 목적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연구가 행해질 수 있으므로 같은 영역을 다른 학문에서 연구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고유한 연구대상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고, 현대과학의 추세로 보아 더이상 한 학문에서의 고유 연구문제라는 것이 고수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표 4>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도덕]과에서는 가정과 이웃생활을 화목하게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올바른 태도와 습관의 형성에 관한 내용을, [사회]과에서는 가정의 의의 및 기능, 가정경제 및 소비자문제, 가사노동의 의미등 가정생활에 대한 중요성과 실효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체육]과에서는 식생활에서의 영양과 건강문

(표 4) 중학교 가정교과 영역의 초등학교에서의 전개내용

	지도 요소(학년)	내용상세화 및 목표
도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끼리 존중하기(3) *친족간의 예절(4) *전통예절에서 본받을 점(5) *예절의 정신과 형식(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끼리 존중하고 아껴주는 마음 *친족간의 예절 *조상들의 예절생활에서 본받을 점 *예절을 통한 인간관계의 기초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생활에 필요한 것들(3) *생활도구 *가정생활의 중요성(4) -가정생활의 윤리, 형태변화 -가족들의 지위와 역할 -청소년, 노인문제와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 *가정의 살림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자(의·식·주,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을위한 일) *일(물자를 생산하는 일, 생활의 편의를 위한 일) *옛날과 오늘날의 가정생활용품(부엌용품, 청소기구, 조명기구) *가정의 여러모습(모듬살이의 하나로서의 가정, 가정의 형태) *가정의 구실(가정의 중요성, 가족구성원의 역할과 상호의존, 가정의 화목, 가정에서의 의사결정) *가정과 사회생활과의 관계(가정에서 배운 예절, 화목한 가정과 사회의 발전) *가정의 수입과 씬씀이(우리집의 수입, 어머니의 가사, 우리집의 씬씀이) *가족의 바람과 한계(우리집 식구들의 경제적바람, 한정된 수입과 현명한 선택, 합리적 소비생활) *저축과 생활향상(저축의 필요성, 저축의 기본자세, 늘어나는 우리집 살림)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의 중요성(3) *청결과 건강 *영양소의 중요성(4) *즐거운 여가생활의 방법 *환경과 건강(5) *음식물과 성장 *신체성장과정(6) *합리적인 식생활(6) *여가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의 중요성, 바른 식사방법, 음식물과 생활 및 성장과의 관계를 다룬다. *식생활에서 손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체의 청결과 건강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신체와 주변환경의 청결에 힘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여러가지 음식물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및 중요성을 알게 하고, 다섯가지 기초식품군을 이해시키며, 올바른 식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게 한다. *여가선용의 필요성과 종류 및 선택방법을 이해시키고, 여가선용을 생활화시킨다. *환경의 실태와 원인 및 건강에 미치는 저해요인을 다루며, 환경보건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기른다. *영양섭취의 과부족에 따른 신체적 장애요인과 오늘날 식생활의 문제점을 다루며, 자신의 식습관을 반성하고 개선에 힘쓰도록 한다. *신체의 구조와 기능, 성장에 따른 남녀의 특성과 역할을 다루며, 생리현상과 생리시의 올바른 몸가짐에 대해 지도하여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식품위생과 건강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식중독의 원인, 증세, 예방법을 지도한다. 식품위생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 *여가선용의 의의와 유형 및 선택방법을 알고, 일상생활속에서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게 한다.

제가 다루어지고 있다.²⁾

이상과 같이 현재의 교육과정 구성으로 보아 가정과 관련과목으로서 초등학교 단계에서 이수하는 [실과]는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족원으로서의 가정생활을 만족스럽게 영위하기 위한 내용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 그리고 가족과 사회와의 상호관련적인 관점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 초등학교 실과의 가정과 영역과 중등학교의 가정과교육의 내용은 같은 계열이라고 하기에는 교과체계상 연계성이 매우 미흡하고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현 6차교육과정에서 가정과 교육의 전개는 우리나라 전체 가정학과 가정과교육의 문제에서 가정학의 본질에 대한 개념이 극명하게 왜곡되어 나타난 또하나의 현상이며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가정학자들이 가정과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배열하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수준부터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정선하고 체계화하는데 노력이 미흡하였던 결과로 보여진다(이기훈, 1989: 256-257).

IV.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

1. 내용영역 구성의 학문적 준거에 대한 이론적 확립

7차교육과정에서의 실과는 내용구성의 준거와 조직원칙이 이론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실과의 내용영역 구성의 기초는 학습의 대상이 되는 가정생활의 파악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가정생활

속에서 선정하여 교재로서 구성해 가기 위하여서는 다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생활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는 가정학자들 사이에 가정학의 연구대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정학자들이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가정생활의 구조를 파악한 견해를 소개하면, 가정생활의 구조를 수평의 관계로 보는 견해에서는 가정생활의 기능에 주목하여 이 기능을 갖는 구성요소를 생활주체·생활객체·생활매체의 세가지로 보고있다(모수미외, 1990:66). 이 세가지 구성요소를 넓게 보면, 생활주체는 가정생활을 구성하는 사람들, 즉 가족이고, 생활객체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질·자재·시설·환경등을 의미하며, 생활매체란 가정생활에 공헌하는 과학적 지식·능력·기술·노동력·금전·생활시간등을 의미한다. 또 다른 견해로는 가정생활을 인간관계, 생활시간, 생활공간, 경제, 생활환경, 생활의식등의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靑井·松原·副田, 1966: 118). 이러한 여섯가지 유형의 생활구조의 요소는 개인의 행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인데, 개인의 생활행동의 대부분이 가정생활의 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생활구조의 유형을 가정생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³⁾

<표 5> 가정생활의 구조

생활행동의 측면 \ 구조적 요인	시간	공간	수단	금전	역할	규범
생산적 행동	가정 생활의 시간적 배분	가정 생활의 공간적 넓이·주거상황	의·식·주 등 소비재의 소유·배치	가계구조와 생활수준	가족구성·가정내역할 분담	생활태도·생활규범
사회적 행동						
문화적 행동						
가정적 행동						
가사적 행동						
생리적 행동						

출처 : 서정희 외, [가정학원론], 하우, 1993, p107

2) 통합교과인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등에서도 가정과교육 관련내용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분화된 교과인 [도덕], [사회], [체육]과만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3) 자세한 내용은 이정연·유영주(1994)의 책 제 5장 가정학의 본질과 서정희외(1993)의 책 제 4장 가정학의 대상을 참조할 것.

여기서 가정생활의 구조를 파악하는 두가지 견해를 소개하였지만, 이러한 견해들중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실과 내용영역 구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과 내용구성에서 이론적으로 그 준거를 확립시키는 일은 현행 6차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체계화의 원칙⁴⁾보다는 훨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것이어서, 실과의 학문으로서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갖추는데 보다 선명할 수 있다.

곽상만(1988)은 영역설정 및 내용구성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교과 체계로서 학교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가정생활의 주체인 사람(가족)과 생활개체인 물(物, 의·식·주 기타)과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영역 설정의 기초가 가정생활의 파악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며, 영역의 분화는 일반적으로 생활 주체를 중심으로 한 생활행동의 측면에서 가족관계의 영역, 생활시간, 가사노동, 가정경제에 관한 측면에서 가정 경영의 영역, 가족이 소비하는 생활물자의 측면에서 의·식·주 영역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설계공작, 기계·기구 조작, 재배·사육등의 영역도 가정생활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곽상만, 1988:147-148).

이렇게 본다면, 현재 7차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론을 구상하고 있는 교육개발원측에서 제시하는 실과의 내용구성안이 생활원예, 조리·재봉, 설계공작, 컴퓨터 등이라고하는 것은 기존 실과의 학문분야 중심별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결국 각 분야별로 하나씩의 중심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 밖에는 되지 못한다. 그것도 각 하위학문영역의 모학문에 대한 대표성을 갖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구성이 중등학교와 계열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김인근, 1996:54)은 실과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일 수 밖에 없다.

현재 가정과교육의 교수·학습이론에서 우선 정립할 문제가 먼저 가정생활에 대한 구조적인 관점, 가정생활의 여러 요소에 내재하는 과학적인 이치의

추출, 생활을 개선있게 이루는 데 필요한 선정의 준거, 이러한 일련의 요소의 상호관계성등을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상화하고 그 구성의 요체를 해명하고 순환체계의 이치를 밝히는 연구작업(윤서석, 1990:112)이라고 보았을 때, 이것이 비단 중등교육에서의 독립된 교과로서 [가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과의 계열로서 초등 실과 교과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기술·가정]으로의 교과명 변경

그간 실과의 교과목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다. 그 이유로는 우선 '실'이라는 단어가 보통명사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개념을 갖지 못하므로 교과의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다루는 교과인지 분명하지가 않아 학습의 대상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명칭들은 '생활학', '실학', '일과 생활', '생활기술' 등이다.

이 중 '일과 생활'이라고 한 안(강항너, 1995)은 실과에서 다루려는 영역이 가정생활의 일들과 주변 생활의 환경 그리고 이웃들과의 협동적 관계등이므로 교양교과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제안하고 있고, '생활기술'이라고 한 안(김진순, 1991)은 실과의 성격을 교양교육적인 생활교육, 노작활동적인 기능교육, 생활실천적인 종합교육으로 보아 '생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초·중등학교의 실과 및 실업·가정교과의 공통적이고 중심적인 요소가 기술 또는 기술학이라고 보아 '기술'이라는 용어를 상정하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의 실과교육은 일반 교양교육을 목적으로 기초기술학을 다루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기술'이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서 그 주요 학습대상을 분명히 하는 한편, 중등학교의 관련 교육과의 계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인은 초등학교 [실과]의 교과명을 [기술·가정]으로 변경하고자 제안한다. 물론 여기서 '기술'이라는 용어를 등장시킨 것은 초등학교의 실과교육이 기초기술학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은 절대 아니다. 교육개혁의 신교육과정 편제에서 유독 초등과정에서는 [실과]로, 중등과정에는 [기술·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국

4) 현행 실과 6차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체계화의 기본 원칙이란 내용의 선정에서 ①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내용, ② 활동을 통하여 실천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 ③ 자기개발적 요소를 갖춘 내용을, 내용의 조직으로는 ① 단계적인 활동중심의 영역 구분, ②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내용의 배열을 들고 있다.

민공통기본교육기간 중에서 학교급별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했다 하는, 그래서 10년동안 통일된 교과명칭으로 일관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이유로 중등학교의 [기술·가정]이 [실과]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실과]라는 교과명칭의 사용은 지금도 그렇듯이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기술]과 [가정]은 학문적 기초가 전혀 달라 6차교육과정에서 각각 독립되어 남녀 공통 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교육과정에서는 [기술·가정]으로 교과목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 [실과]를 [기술·가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제안은 신교육과정체제에 따른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신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대심화형 수준별,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실과에 적용하는데 보다 체계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실과]에서는 내용상 위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취수준이나 흥미·적성 보다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수행능력과 경험에 강조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확대 심화형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과목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능력수준과 적성·흥미의 차이에 따라 확대되고 심화된 내용의 교육을 진행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막연한 [실과]보다는 [기술·가정]으로 되었을 때 보다 정확한 영역이 설정되어 학생들이 심화과정으로 선택하고, 각각의 수준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생활에 대한 학습으로 [사회]가 있듯이 가정생활에 대한 교과는 [가정]으로서 일반교과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는 항상 기술과의 문제가 가로 놓여 있다. [가정]의 교과와 본질적 성격이 [기술]과와 다른 기술과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과]를 [기술·가정]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현실적이고 아동의 수준과 욕구에 맞는 교육제재의 선정·구성

실과는 교과와 특성상 많은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기, 체험, 실천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과정내용과 목표, 지도방법등이 일관되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 실습시설이 미비되고 자료, 도구가 없으면, 실습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이론과 설명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교육과정상 교육의 목표와 취지는 현실과 모순되고 분리된 채 교사에게는 갈등만 초래시키고 교육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훌륭한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실과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자료가 갖추어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음식만들기를 할 수 있는 조리실, 목공일을 할 수 있는 공작실등의 실습실과 꽃가꾸기를 할 수 있는 재배장, 토끼기르기·닭기르기 등을 할 수 있는 사육장 등의 실습지, 어린이의 발달수준과 손에 맞는 연장 등이 필요하다. 물론 부족한 여건을 최대한 극복하며 수업에 임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 교과의 내용 중에는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제재들이 존재하고 있어 실과교육의 유용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실과의 실용성의 문제는 현재 상태에 대한 추종적인 실용성이 아니라 과학성을 인식하고 적용하는 본질로서 이해되어야 하겠지만, 그러한 이해도 오늘의 실상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감이 적은 제재는 학생들의 흥미를 반감시키고 교사들의 교수욕을 저하시켜 실과교육을 침체시키는 또하나의 원인이 된다. 현재 실과가 교육현장에서 타교과에 비해 교과로서의 흥미를 잃고 있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 그 원인은 전통적인 근로천시풍조나 임시위주의 교육풍토같은 사회구조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교육내용의 비현실성이나 시설, 자료의 부족등 실과 내적인 면에서 오는 악순환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새교육과정은 우선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도 흥미롭고 유익하며 유용한 생활교과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들 주변의 일과 어린이들 수준에 따라 관심이 많은 대상을 선정하여 지도요소를 추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학습효과로 필요한 동기유발과 어린이들의 흥미를 위하여 삽화,

관련 사정도 보다 현실적이고 세련화시켜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 7차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초등학교 실과의 현실을 가정과교육의 입장에서 살펴 보았다. 초등학교 가정과 교육은 역사적으로 [실과]라는 교과목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문에 실과라는 교과목의 개념과 성격이 규정되는 과정속에 가정과교육의 개념도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과] 학문의 구조적 위치로 보아도 초등 가정과교육은 중등의 가정과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입지는 현행 6차교육과정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실과]가 학습의 대상이 되는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나 철학이 우선 전제되어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방법적인 면을 강조하여 각 학문분야별로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선정·구성되어 있을 뿐, 따라서 그것이 가정생활과 어떻게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6차교육과정에서의 실과의 내용은 일의 세계에 대한 경험, 노작활동등 생활에 직접 필요하면서도 실천가능한 것을 정선하여 구성한다는 전제가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는 4차교육과정 개정시부터 실과시간의 축소 및 존재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된 후, 실과내용이 농업중심에서 가정중심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계속 제시되면서 6차에 와서 주당 1시간씩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제시된 하나의 처방전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이 과정에서 실과내 가정과교육은 기능중심의 학습만이 강조되다 보니 가정과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정성'에 대한 기본적 철학은 무시되고 따라서 중등학교의 가정과교육과는 크게 그 성격이 변질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실과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과]교과목의 역사이래 반복되어 오던 가정과교육의 왜곡된 본질과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새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실과의 내용의 구성에는 변치않는 어떤 이론적인 원칙과 준거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실과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에 대한

분명한 준거가 될 수 있다. 가정생활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 틀안에서 아동의 발달수준에 맞게 구성된 내용들은 아동들의 가정생활중 의미있는 경험임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과교육이 방황하지 않고 교과로서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우선적인 길이다. 둘째, [실과]의 교과목명을 [기술·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실과교육의 문제점 해결방안일 뿐만 아니라, 신교육개혁의 체제와 방침에도 따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안이다. 셋째, 실과는 유용한 교과로 인식되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이 현실적이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실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구성 뿐만 아니라, 교사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가정과교육이 안고 있는, 가정학의 본질과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해결에 비로소 제 몫을 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 향녀(1995), 실과 교수-학습 문제와 개선방안, [실과교육연구] 제 1권 1호, 한국실과교육연구회.
- 곽 상만(1988), [실과교육론], 갑을출판사
- 교육부(1994),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1·2·3,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1994),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 인근(1996),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에 관한 토론, 한국실과 교육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21세기를 대비한 초등 실과교육의 발전방향모색] 토론문.
- 김 진순(1991), 초·중·고등학교 실과 및 실업·가정 교과체제 개선방안, [대한공업교육학회지] 제 16권 1호, 대한공업교육학회.
- 서 정희 외(1993), [가정학원론], 하우
- 윤 서석(1990), 가정과 교수학습의 실제,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제 2차 학술대회 주제강연,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 2권 1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 이 기훈(1989),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문제점, [대한가정학회지], 27권, 대한가정학회 255-258

이 영세(1995), [가정학이 추구하는 가정의 안녕과 복지의 개념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 용순(1996),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한국실과교육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21세기를 대비한 초등 실과교육의 발전방향모색] 발표문.

이정연·유영주(1994), [가정학원론], 신광출판사
전국교육대학교 실과교육연구회 편(1996), [실과교육], 교육출판사

최 유현(1996), 초등 실과교육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관한 이론적 탐색, [실과교육연구] 제9집, 전국교육대학교 실과교육연구회